

다문화 청소년 학업중단 위험 유형별 관련 변인 연구

박 선 숙*

동명대학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 유형별 가족 특성 요인과 다문화 수용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일치분석을 적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 1,1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 유형은 ‘독립형’, ‘가족형’, ‘안전형’, ‘친구형’, ‘개인형’, ‘개인친구형’ 등 6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 유형별 가족특성 요인과의 관계는 어머니 출신 국가, 결혼 상태, 가정형편 인식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 유형별 다문화 수용 요인과의 관계는 이중문화수용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우리나라의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위험을 예방 및 최소화하고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 청소년, 학업 중단 위험, 가족 특성 요인, 다문화 수용 요인, 대응일치분석

* 주저자: 박선숙/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사회과학관 509호
/Tel: 051-629-2124/E-mail: pss4498@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글로벌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문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한국에서도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 가족 자녀와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확산과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시·공간적 거리를 뛰어넘어 국가 간의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 가족, 이주 배경 청소년 등이 새로운 청소년복지의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1년 교육부 조사에서 다문화 청소년 수는 160,056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유·초등학생의 증가율보다 중·고등학생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21). 2020년 기준 다문화청소년은 초등학생이 73.1%, 중학생이 18.2%, 고등학생이 8.5%의 비율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2021).

다문화 청소년들은 비 다문화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높으며, 학령기가 증가할수록 학업중단이 높아진다(조영미 외, 2021). 2019년 기준 전체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생 0.7%, 중학생 0.8%, 고등학생 1.8%로 보고되었으나(여성가족부, 2021),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생 0.87%, 중학생 1.34%, 고등학생 1.91%로 전체 학생의 학업 중단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20).

학교는 청소년들이 깨어있는 일과 시간 중 대부분을 보내는 곳으로, 학교에서의 규칙이나 학습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그리고 또래나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잘 적응하느냐 하는 것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Arends-Toth & van de Vijver, 2006). 특히 학교 부적응의 양상은 초등학교에서 상급학교인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Daly et al., 2009), 고학년에 대한 학교 부적응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급학교로의 전환기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은 앞으로의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위험성이 높다(Lester, Waters, & Cross, 2013).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은 단순히 학업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교육권 박탈과 생활 관리의 문제, 이탈 등의 문제를 야기(오혜영, 2011; 한정자·홍지영, 2017; 정두수, 2021) 할 수 있어서 더욱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은 국가적 측면에서 미래의 노동력 감소로 생산력 손실과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안정적인 직업구조의 파괴, 범죄 발생률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범사회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정두수·백진아, 2020). 특히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 중단은 직업 선택이나 진로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문화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조영미 외, 2021).

기존의 다문화 청소년 연구들은 심리학적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학업중단 위험요인을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문화 청소년의 군집유형을 분류한 비슷한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환기인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군집유형을 분류하고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김미진·김경은, 2021)가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 관련 변인의 군집유형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과 신체 및 삶의 만족도 차이 연구 (김현아, 2020), 다문화청소년 비행의 유형별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박지수 외, 2021) 등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관련 요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의 특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으며(Schulz et al., 2010),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에 비해 여전히 한국 사회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미진·김경은, 2021; 우안순·백진아, 2021).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문화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 또는 모의 모국문화를 경험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문화를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이들의 적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rry et al., 2006; 김미진·김경은, 2021).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는 학업 중단 위험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다문화 적응 연구가 유아나 아동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중·고등학생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지만,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포함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인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류된 학업 중단 위험 유형별 가족 특성 관련 변인을 분석하고, 이중문화 태도 및 다문화 수용성 등의 다문화 수용 요인과의 관련성을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위험 유형에 따른 가족 특성 요인과 다문화 수용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학업 중단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차단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고 향후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 위험 유형

다문화는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조화의 필요성으로 등장한 용어이다. ‘다문화’란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각 나라와 민족의 문화를 연결·반영·적용하여 근본적으로 각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로서 2006년 이후 널리 사용되었고, 오늘날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그간 출생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것에서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2020).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은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청소년 연령에 속하는 집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천정웅, 2021). 다문화가정의 유형은 크게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한 이탈주민 가정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생활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청소년을 의미한다.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은 연평균 33,061명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은 연평균 1,318명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20). 통계청(2020)에 의하면 다문화청소년은 2000년대 0.1%였던 것이 2015년 1.4%에서 2019년 전체 학생수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체 청소년의 인구수가 감소하는 데 반해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 사회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조영미 외, 2021).

2017년 교육부 조사에서 다문화청소년 중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전체 다문화학생 10만 9,387명 중

1,278명으로 1.17%를 차지하며, 초등학생이 0.99%, 중학생 1.47%, 고등학생 2.11%으로 나타나(교육부, 2018),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으로 인한 낮은 진학률은 진로설정에 필요한 교육기회를 놓치고 직업선택의 폭을 좁게 하며, 자아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기술의 습득 등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하는 발달과업의 미비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 사회응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김로라·이조경, 2016; 이자영 외, 2010; 임유화·이병욱, 2014; 정규석·Bronson, 2000),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집단따돌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부모양육태도 등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의도를 야기시키는 다양한 요인들로 보고되고 있다(Janosz et al., 2000; Goebert, 2009; 이덕희, 2016; 이영주·박륜경·이수경, 2017; 홍나미·박현정, 2017; 이래혁·장혜림, 2019; 오정아·변수정, 2020).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 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군집유형을 분류한 비슷한 연구로는 김미진과 김경은(2021)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을 군집 분석하였으며, 김현아(2020)는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 관련 변인을 군집 유형화하였고,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유형에 따른 예측요인을 분석한 연구(박지수 외, 2021) 등이 있다. 이처럼 학업중단 위험요인을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이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을 군집 분석한 연구에서, 학교적응 하위요인인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서 점수가 낮으나 학교규칙의 점수가 높은 집단인 ‘규칙준수형’, 학교규칙의 점수는 낮으나 특히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의 점수가 높은 집단인

‘관계중심형’,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 등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낮은 ‘부적응형’,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점수가 높은 ‘학교친화형’으로 분류되었다(김미진·김경은, 2021).

2)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 위험 유형별 영향요인

(1) 가족 특성 요인과의 관계

학업 중단 의도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상태이므로(Diener & Fujita, 2005), 학업중단 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 사회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다문화가정의 경우,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소득 수준이 낮고 학습 환경도 열악하여 다문화 청소년은 비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조영달, 2006), 이는 학교 부적응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학업 중단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이라는 특성은 자녀에게 방임적 태도를 더 보일 수 있으며(조성희·박소영, 2020),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방임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나미·박현정, 2017; 조영미 외, 2021).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개인·가족·다문화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세진 외, 2018)와 다문화 가족 자녀의 가족기능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은선경, 2010)를 통해 가족의 특성이 학교적응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적응과 부적응을 조절하는 기능과 잠재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Walsh et al., 2006). 많은 연구자들이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이자영 외, 2010), 부모님의 낮은 경제적 지위와 이혼·사별 등

결혼가정 요인이 학업 중단 위험을 높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Huisman & Smits, 2009).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위험 요인으로 부모의 출신 국가와 결혼 상태, 가정형편에 대한 인식 등의 가족 특성 요인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다문화 수용 요인과의 관계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 가족에서 경험하는 문화와 한국 사회에 소속되기 위한 문화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체성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문화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이중문화는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노충래·홍진주, 2006).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 평균이 비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박희훈·오성배, 2014)를 통해 문화 적응 과정이 학교적응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수용성은 상대방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지식),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으며(정서), 다른 문화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으로(최미경·공계순, 2022), 다문화인들에 대해 편견이나 부정적인 가치를 갖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태도 및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영,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란 부모의 문화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 혹은 그 반대로 한국 사회의 문화를 기반으로 부모의 문화에 대한 수용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은선경, 2016).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혜영, 2020), 청소년에게 있

어 개인과 사회를 포괄하는 교육과 적응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중문화수용이란 각 나라의 주류 문화와 자신의 선조로부터 전해져오는 문화에 대해 어느 한쪽 문화에 치중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Nguyen & Benet-Martinez, 2013).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 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 완벽한 주류 사회로의 동화를 설명하는 용광로(melting pot) 모델이나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서로 대립과 경쟁한다는 갈등론적 관점의 한계를 넘어 수용의 관점을 표방한다(정두수·백진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중도에 탈락하려는 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이선희, 2018).

문화적응의 과업을 지닌 다문화청소년들을 둘러싼 문화에 대해 갖는 태도는 그들의 적응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곽지영, 2020).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우안순·백진아, 2021; 정두수,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중3 시점 다문화 수용성이 고1 시점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문희정·김은예, 2021)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다문화 수용성 및 다문화 인식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최경일, 2016; 임명희, 2022)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에 이중문화수용태도와 다문화 수용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평균적으로 비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낮지만, 매칭 방법을 통한 조정 후에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김혜미·문혜진, 2013)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위험요인을 예방 또는 제거함으로써 향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 유형에 따른 가족요인 및 다문화 인식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미래의 사회

적 비용을 감소하고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C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의 가장 최근 데이터인 9차년도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9회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9차년도 자료는 2,224가구의 다문화가족 패널을 구축하여 1,178명의 청소년이 응답한 자료이다. 2011년 다문화청소년 패널 구축 당시에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2019년까지 진행되었기에 본 연구에 사용한 9차년도 자료는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이다.

다문화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한정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모집단 분포에서 국제결혼가정자녀가 대다수이기에 결과적으로 본 패널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자녀가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인 다문화청소년 중에서 설문에 응답하지 않는 결측값은 분석에서 사례별로 제외하였으며 부분적 결측값은 평균으로 대체하였다. 최종 1,146명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전체의 49.0%, 여학생은 51.0%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17세가 85명(7.4%), 18세 1,021명(89.1%), 19세 36명(3.1%), 20세 이상이 4명(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분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562	49.0
	여자	584	51.0
연령	17	85	7.4
	18	1021	89.1
	19	36	3.1
	20이상	4	4
어머니 출신국가	한국	36	3.1
	중국(한족, 기타민족)	81	7.1
	중국(조선족)	199	17.4
	베트남	24	2.1
	필리핀	299	26.1
	일본	400	34.9
	태국	48	4.2
	기타	59	5.1
결혼상태	결혼	994	88.5
	이혼	57	5.1
	별거	12	1.1
	사별	57	5.1
	동거	3	3
가정형편 인식	아주 어렵다	143	12.7
	어려운 편이다	442	39.4
	보통이다	505	45.0
	잘사는 편이다	33	2.9

어머니 출신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전체 응답자의 34.9%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이 26.1%, 조선족이 17.4%, 기타 중국 국적이 7.1%, 태국이 4.2%, 한국이 3.1%, 베트남이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출신 국가는 한국 출신 아버지가 응답자의 96.6%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아 이 분석은 제외하였다.

부모의 결혼상태별로는 결혼이 전체 응답자의 88.5%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과 사별이 5.1%, 별거가 1.1%, 동거가 0.3%로 나타났다. 학생이 인식하는 가정형편 인식에서는 보통이다가 전체 응답자의

45.0%로 나타났으며, 어려운 편이다가 39.4%, 아주 어렵다가 12.7%, 잘사는 편이다는 2.9%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학업 중단 위험요인 척도는 생활 및 태도를 측정 한 8문항과 친구 및 선후배의 영향을 측정한 6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생활 및 태도는 이자영 외(2010)의 학업 중단 위험요인 5가지 군집 중 교사 및 규율에 대한 갈등,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 무기력감 및 가정 내 갈등, 친구 관계 갈등의 4가지 군집에서 각각 2문항씩 총 8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측정 한 것이다. 친구 및 선후배의 영향은 김순규(2001)의 지역사회 요인 중 비행 친구와의 접촉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노충래와 홍진주(2006)가 개발한 ‘한국 및 몽고 문화 태도 평가 척도’ 중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이다. 한국과 외국 부모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음악, 영화, 의복, 문화 활동 참여, 미래 거주 및 진학 국가, 취학 희망정도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움’, ‘나는 한국문화(옷, 음악, 음식, 영화 등)를 즐기는 편임’ 등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에 관심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수용성 척도는 양계민과 정진경(2008)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이경상 외(2011)의 다문화 수용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수용성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이 발표한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에서 내린 정의를 참고하여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정

의되어 있다(최미경·공계순, 202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등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처리 절차

자료 분석은 SPSS WIN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학업 중단 위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가족 특성 요인과 다문화 인식요인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대응일치분석은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분석하는 일종의 다변량통계분석(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데이터를 2차원 공간에 그림(Graphic)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변수들 간 관계를 직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선숙, 2020).

대응일치분석은 두 개의 범주형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업중단 위험 유형과 이중문화수용태도 유형, 다문화수용인식 유형은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하여 변수를 축약하였고, 축약된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시 요인적재값 추정은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방식을 사용하였고, 회전은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은 K-means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군집수 K 값의 결정은 군집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각 군집의 소속 수를 고려하여 정하였다. 대응일치분석시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척도를 사

용하였다.

III. 결과

1. 학업 중단 위험요인 유형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위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학업 중단 위험요인 측정 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축약하고, 축약된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1은 ‘친구일탈’, 요인2는 ‘독립욕구’, 요인3은 ‘가족문제’, 요인4는 ‘개인일탈’로 명명하였다(<표 2>). 요인적재값은 요인1에서 0.368로 0.5이하로 나온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의 목적은 측정 도구의 엄격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이 아니고, 축약된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요인적재값이 0.5 이하로 나와도 분석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또 KMO=0.786, 각 요인의 고유값은 모두 1.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누적변동설명력도 61.303으로 50.0% 이상으로 나와 탐색적 요인분석의 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업중단 위험요인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나는 학교에서 머리, 옷, 담배 등을 규제하는 것이 싫다.	.103	.223	.117	.767
학교를 그만두면 자유롭게 행동(술, 담배, 머리 등) 할 수 있을 것 같다.	.086	.165	.166	.793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024	.784	.091	.291
빨리 돈을 벌고 싶다.	.053	.837	.116	.139
부모님과 자주 싸운다.	.061	.092	.885	.134
집에 들어가기 싫다.	.046	.101	.888	.135

측정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내 친구 중 자퇴를 한 친구가 있다.	.536	.235	.011	-.163
내 친구 중 학교가지 말고 놀자고 하는 친구가 있다.	.368	-.076	.040	.140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종종 결석을 한다.	.683	-.038	.018	.191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담배를 핀다.	.784	.274	.019	-.102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술을 마신다.	.760	.310	.010	-.090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810	.030	.051	.046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경찰서에 불려간 적이 있다.	.738	-.089	.069	.096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가출을 한 적이 있다.	.686	-.084	.007	.161
KMO=0.786				
고유값	3.781	1.660	1.644	1.497
변동설명력	27.009	11.857	11.743	10.695
누적변동설명력	27.009	38.866	50.609	61.303

추출된 4개의 요인점수를 구한 다음 이 4개의 요인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군집분석은 K-means 방식을 택하였고, K=4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점수는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변수이다. 다음의 <표 3>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위험 유형을 위한 군집분석의 결과이다. 최종 분석 결과 군집1은 독립 욕구 평균이 0.914로 높게 나와 ‘독립형’, 군집2는 가족 문제가 평균 1.272로 높게 나와 ‘가족형’, 군집3은 4개 요인점수 평균이 평균 이하로 나와 ‘안전형’, 군집4는 친구 일탈이 평균 2.103으로 나와 ‘친구형’, 군집5는 개인 일탈 평균이 0.810으로 높게 나와 ‘개인형’, 군집6은 친구 일탈이 평균 2.095, 개인 일탈이 평균 1.629로 높게 나와 ‘개인친구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에 속하

는 학생 수는 군집1은 261명, 군집2는 171명, 군집3은 244명, 군집4는 94명, 군집5는 315명, 군집6은 61명으로 나타났다.

<표 3> 다문화 청소년 학업중단 위험 유형

요인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군집6
친구일탈	-0.143	-0.029	-0.387	2.103	-0.599	2.095
독립욕구	0.914	0.526	-1.105	-0.532	-0.074	0.237
가족문제	-0.821	1.272	-0.527	0.255	0.395	-0.378
개인일탈	-0.385	-0.618	-0.460	-0.385	0.810	1.629
표본 수	261명	171명	244명	94명	315명	61명
군집명	독립형	가족형	안전형	친구형	개인형	개인 친구형

2.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 유형별 가족특성 요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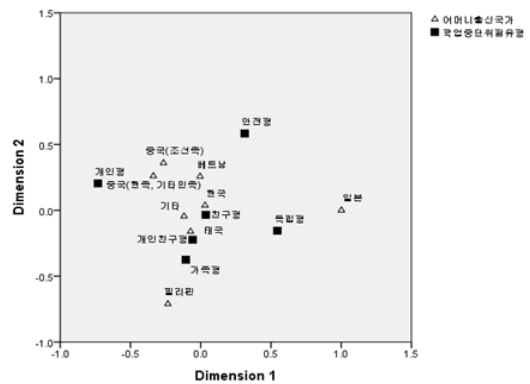
1) 어머니 출신 국가

어머니 출신 국가별로 학업 중단 위험 유형의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독립형의 경우 대부분 출신 국가에서는 16%~27%대에 있는 반면 베트남은 1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형은 한국이 22.2%, 태국이 20.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전형은 베트남이 41.7%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친구형은 태국이 12.5%로 높게 나온 반면 베트남은 0%로 나타났다. 개인형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20%-30% 정도로 비중이 비슷하게 나왔으나 한족 중국의 경우 37.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친구형에서는 기타 국가가 10.2%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필리핀이 7.0%, 조선족 중국과 일본이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어머니 출신 국가별 학업중단 위험 유형

출신 국가	독립형	가족형	안전형	친구형	개인형	개인 친구형
한국	6 16.7%	8 22.2%	10 27.8%	3 8.3%	8 22.2%	1 2.8%
중국 (한족, 기타)	14 17.3%	9 11.1%	17 21.0%	9 11.1%	30 37.0%	2 2.5%
중국 (조선족)	42 21.1%	26 13.1%	45 22.6%	14 7.0%	62 31.2%	10 5.0%
베트남	3 12.5%	3 12.5%	10 41.7%	0 0.0%	7 29.2%	1 4.2%
필리핀	68 22.7%	51 17.1%	52 17.4%	24 8.0%	83 27.8%	21 7.0%
일본	105 26.3%	56 14.0%	92 23.0%	34 8.5%	93 23.3%	20 5.0%
태국	11 22.9%	10 20.8%	7 14.6%	6 12.5%	14 29.2%	0 0.0%
기타	12 20.3%	8 13.6%	11 18.6%	4 6.8%	18 30.5%	6 10.2%

어머니 출신 국가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위험 유형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응일치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어머니 출신 국가와 학업 중단 위험 유형 간의 대응일치분석

대응일치분석 그림에 따르면 가족형은 태국과 한국, 필리핀, 기타국가와 연관성이 높았고, 개인친구형은 태국, 기타, 한국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친구형은 한국과 연관성이 높았으며, 개인형은 한족 중국과 연관성이 높았고, 안전형과 베트남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조선족 중국과 한국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독립형은 뚜렷하게 연관된 국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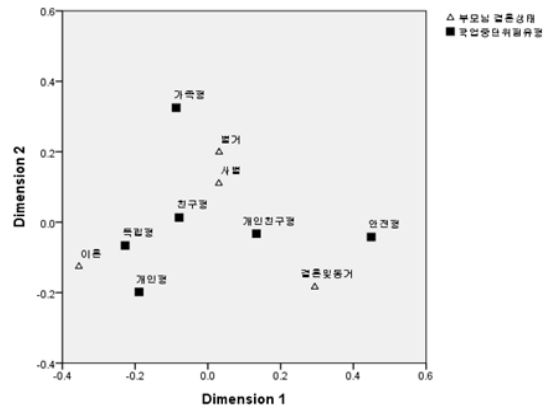
2) 부모의 결혼 상태

부모의 결혼상태별로 학업 중단 위험 유형의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독립형에서는 별거인 경우가 8.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가족형에서도 별거형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5>). 안전형에서는 이혼이 8.8%로 가장 낮게 나온 반면 친구형에서는 모두 8~10%대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이혼이 10.5%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개인형에서는 이혼이 35.1%로 높게 나온 반면 별거는 6.7%로 낮게 나타났다. 개인친구형은 사별이 6.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결혼 및 동거가 5.6%로 높게 나온 반면 별거는 0%로 나타났다.

<표 5> 부모의 결혼상태별 학업 중단 위험 유형

결혼 상태	독립형	가족형	안전형	친구형	개인형	개인 친구형
결혼 및 동거	223 22.4%	143 14.4%	219 22.0%	82 8.2%	271 27.3%	56 5.6%
이혼	17 29.8%	8 14.0%	5 8.8%	6 10.5%	20 35.1%	1 1.8%
별거	1 8.3%	5 41.7%	3 25.0%	1 8.3%	2 16.7%	0 0.0%
사별	14 23.3%	10 16.7%	13 21.7%	5 8.3%	14 23.3%	4 6.7%

부모의 결혼 상태와 학업 중단 위험 유형과의 연관성을 도형화하기 위해 대응일치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대응일치분석 그림 결과를 보면 독립형과 개인형은 ‘이혼’과 연관성이 높았고, 가족형과 친구형은 ‘별거’와 ‘사별’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친구형과 안전형은 ‘결혼 및 동거’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부모의 결혼 상태와 학업 중단 위험 유형 간의 대응일치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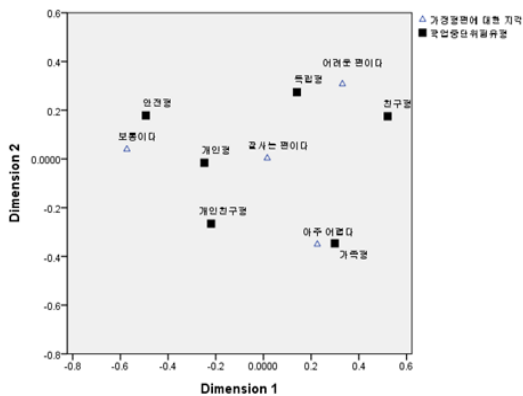
3) 가정형편 인식

다문화 학생의 가정형편 인식별로 학업 중단 위험 유형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독립형의 경우 모두 20~30%대로 비슷하게 나왔고, 가족형에서는 ‘아주 어렵다’가 21.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안전형에서는 ‘보통이다’와 ‘어려운 편이다’가 각각 24.2%, 20.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친구형에서는 ‘아주 어렵다’와 ‘어려운 편이다’가 각각 10.5%, 10.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개인형에서는 ‘잘 사는 편이다’가 33.3%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친구형에서는 ‘아주 어렵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7.0%, 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가정형편 인식별 학업 중단 위험 유형

가정형편 인식	독립형	가족형	안전형	친구형	개인형	개인친구형
아주 어렵다	29	30	23	15	36	10
어려운 편이다	20.3%	21.0%	16.1%	10.5%	25.2%	7.0%
보통이다	106	65	90	48	116	17
잘사는 편이다	24.0%	14.7%	20.4%	10.9%	26.2%	3.8%
아주 어렵다	111	66	122	29	144	33
어려운 편이다	22.0%	13.1%	24.2%	5.7%	28.5%	6.5%
보통이다	9	5	5	2	11	1
잘사는 편이다	27.3%	15.2%	15.2%	6.1%	33.3%	3.0%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정형편과 학업 중단 위험 유형과의 연관성을 도회화하기 위해 대응일치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대응일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형은 가정형편이 ‘보통이다’와 연관성이 높았고, 가족형은 가정형편이 ‘아주 어렵다’와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독립형과 친구형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이다’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개인친구형은 뚜렷하게 연관성이 높은 가정형편 상태는 없으므로 나타났다.



<그림 3> 가정형편 인식과 학업 중단 위험 유형 간의 대응일치분석

2.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위험 유형별 다문화 수용 요인과의 관계

1)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 측정 문항을 축약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7>). 요인1은 ‘한국 문화수용’, 요인2는 ‘외국인부모국가 문화수용’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적재값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KMO=0.791로 0.8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고유값은 모두 1.0 이상, 2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누적변동설명력은 59.915%로 50.0% 이상으로 나와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이중문화수용태도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 문항	한국 문화 수용	외국부 모문화 수용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0.805	-0.104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0.804	0.186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0.766	-0.019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0.752	0.255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0.652	0.134
나는 앞으로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0.089	0.848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로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0.113	0.820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0.290	0.724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0.129	0.689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0.320	0.612
KMO=0.791		
고유값	3.097	2.894
변동설명력	30.972	28.942
누적변동설명력	30.973	59.915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2개의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표 8>과 같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수는 K=4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1은 한국 문화수용의 평균이 0.883, 외국부모국가 문화수용 평균이 1.201로 높게 나타나 ‘공정한국/공정외국부모’로 명명하였고, 군집2는 한국 문화수용 평균은 -0.799로 낮게 나타났으며, 외국부모국가 문화수용의 평균은 0.671로 높게 나타나 ‘부정한국/공정외국부모’로 명명하였다. 한편 군집3은 한국 문화수용은 평균 1.120으로 높게 나오고, 외국부모국가 문화수용의 평균은 -0.933으로 낮게 나와 ‘공정한국/부정외국부모’로 명명하였고, 군집4는 한국 문화수용의 평균은 -0.541, 외국부모국가 문화수용의 평균은 -0.523으로 모두 낮게 나와 ‘부정한국/부정외국부모’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에 속한 학생 수는 군집4가 4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군집2가 282명, 군집3이 238명, 군집1이 20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이중문화수용태도 군집분석

요인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한국문화수용	0.883	-0.799	1.120	-0.541
외국부모문화수용	1.201	0.671	-0.933	-0.523
표본 수	209명	282명	238명	417명
군집명	공정한국/공정외국부모	부정한국/공정외국부모	공정한국/부정외국부모	부정한국/부정외국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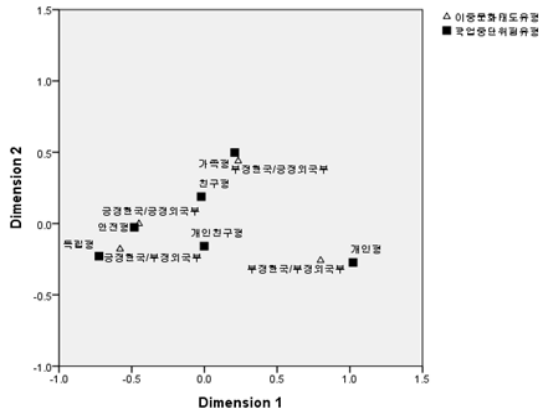
군집분석에서 나온 이중문화수용태도 유형별로 학업 중단 위험 유형의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분석 결과 독립형의 경우 ‘공정한국/부정외국부모’가 32.8%, ‘공정한국/공정외국부모’가 29.2%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형에서는 ‘부정한국/공정외국부모’가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안전형에서는 ‘공정한국/공정외국부모’가 28.2%, ‘공정한국/부정외국부모’가

25.6%로 비중이 높았고, 친구형에서는 모두 7%-9% 사이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개인형에서는 ‘부정한국/부정외국부모’가 37.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정한국/공정외국부모’가 29.4%로 나타났다. 개인친구형에서는 ‘공정한국/부정외국부모’가 6.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9> 이중문화수용태도별 학업 중단 위험 유형

이중문화수용태도	독립형	가족형	안전형	친구형	개인형	개인친구형
공정한국/공정외국부모	61 29.2%	26 12.4%	59 28.2%	17 8.1%	36 17.2%	10 4.8%
부정한국/공정외국부모	52 18.4%	55 19.5%	53 18.8%	27 9.6%	83 29.4%	12 4.3%
공정한국/부정외국부모	78 32.8%	26 10.9%	61 25.6%	19 8.0%	39 16.4%	15 6.3%
부정한국/부정외국부모	70 16.8%	64 15.3%	71 17.0%	31 7.4%	157 37.6%	24 5.8%

다문화가족 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학업중단 위험 유형 간의 연관성을 도형화하기 위해 대응일치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대응일치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형은 ‘부정한국/부정외국부모’와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가족형과 ‘부정한국/공정외국부모’와 연관성이 높았으며, 안전형은 ‘공정한국/공정외국부모’와 독립형은 ‘공정한국/부정외국부모’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친구형과 개인친구형은 뚜렷하게 연관성이 높은 이중문화수용태도 유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학업 중단 위험 유형 간의 대응일치분석

2)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 측정 문항을 탐색적 요인 분석한 결과 요인 2개가 추출되었다(<표 10>). 요인1은 ‘다문화 동료 수용’, 요인2는 ‘다문화 이성 수용’으로 명명하였다. 또 요인적재값이 모두 0.5 이상, 각 요인의 고유값은 1.0 이상, 2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누적변동설명력은 86.390%로 50.0% 이상으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은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10> 다문화 수용성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 문항	다문화 동료수용	다문화 이성수용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888	.24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895	.267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775	.451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으로 사귀 수 있다.	.401	.849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229	.929

측정 문항	다문화 동료수용	다문화 이성수용
KMO=0.807		
고유값	2.403	1.917
변동설명력	49.053	38.337
누적변동설명력	48.053	86.390

<표 11>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2개의 요인점수를 통해 군집분석을 한 결과이다. 군집 수 K=4로 하였다. 군집1은 다문화 동료 수용 평균이 0.896, 다문화 이성 수용은 0.911로 모두 높아 ‘고동료/고이성’으로 명명하였다. 군집2는 다문화 동료 수용 평균은 -0.747로 낮고 다문화 이성 수용 평균은 0.009로 평균값에 가깝게 나타나 ‘저동료/중이성’으로 명명하였다. 군집3은 다문화 동료 수용은 평균 0.740으로 높게 나온 반면 다문화 이성 수용은 -1.549로 낮게 나와 ‘고동료/저이성’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4의 경우 다문화 동료 수용은 -4.188로 매우 낮게 나온 반면 다문화 이성수용은 0.669로 높게 나와 ‘저동료/고이성’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각 군집의 청소년 수에서는 군집2가 5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군집1은 348명, 군집3은 212명, 군집4는 9명으로 나타났다. 군집4의 경우 9명으로 표본수가 너무 적어 통계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있으나 군집 수 K=3으로 할 경우 군집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 군집 수 K=4를 유지하였다.

<표 11> 다문화 수용성 군집분석

요인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다문화동료수용	0.896	-0.747	0.740	-4.188
다문화이성수용	0.911	0.009	-1.549	0.669
표본 수	348명	577명	212명	9명
군집명	고동료/고이성	저동료/중이성	고동료/저이성	저동료/고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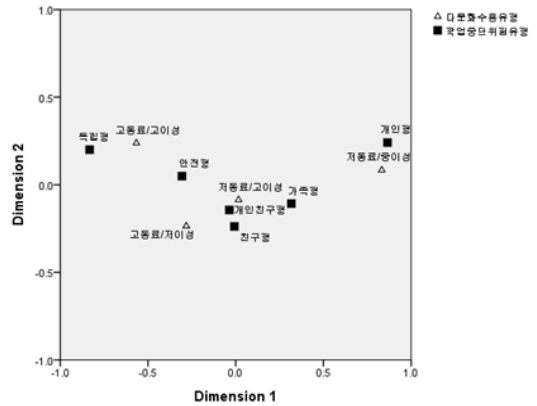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다문화 수용성 유형별로 학업중단 위험 유형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독립형의 경우 ‘고동료/고이성’이 29.9%, ‘고동료/저이성’이 26.9%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형에서는 ‘저동료/고이성’이 3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12>). 안전형에서는 ‘고동료/고이성’이 23.9%, ‘고동료/저이성’이 23.1%로 높게 나타나 독립형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친구형에서는 ‘저동료/고이성’이 22.2%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보였다. 개인형에서는 ‘저동료/저이성’이 33.6%로 높게 나온 반면 개인친구형에서는 ‘저동료/고이성’이 0.0%로 낮게 나타났다.

<표 12> 다문화 수용성 별 학업 중단 위험 유형

다문화 수용성	독립형	가족형	안전형	친구형	개인형	개인친구형
고동료/고이성	104 29.9%	42 12.1%	83 23.9%	26 7.5%	75 21.6%	18 5.2%
저동료/중이성	99 17.2%	98 17.0%	111 19.2%	46 8.0%	194 33.6%	29 5.0%
고동료/저이성	57 26.9%	28 13.2%	49 23.1%	20 9.4%	44 20.8%	14 6.6%
저동료/고이성	1 11.1%	3 33.3%	1 11.1%	2 22.2%	2 22.2%	0 0.0%

다문화 수용성 유형과 학업 중단 위험 유형과의 연관성을 도형화하기 위해 대응일치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5>와 같다. 대응일치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형은 ‘고동료/고이성’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형은 ‘저동료/중이성’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친구형은 ‘저동료/고이성’과 연관성이 높게 나온 반면 안전형은 ‘고동료/고이성’과 ‘저동료/고이성’과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있었으며, 친구형은 ‘고동료/저이성’과 상대적인 연관성이 있었고, 가족형은 ‘저동료/고이성’과 상대적

인 연관성이 있었지만 그 연관성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다문화수용성 유형과 학업 중단 위험 유형 간의 대응일치분석

IV.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위험 유형별 가족 특성 요인과 다문화 수용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 1,1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 유형은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분류하였고,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가족 특성 요인 및 다문화 수용 요인 간의 연관성은 교차분석과 대응일치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 유형은 ‘독립형’, ‘가족형’, ‘안전형’, ‘친구형’, ‘개인형’, ‘개인친구형’ 등 6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군집에 속하는 학생 수는 ‘개인형’이 가장 많았으며 ‘독립형’과 ‘안전형’, ‘가족형’, ‘친구형’, ‘개인친구형’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형의 유형이 가장 학업 중단의 위험이 큰 것을 의미하며, 개인형은 개인적 이탈이 높은 청소년으로 학교의 규제를 싫

어하고 술, 담배, 머리 등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 유형이다. 독립형은 가능한 빨리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고, 안전형은 전반적인 일탈 점수가 낮게 나와 특별한 요인을 발견하기 힘든 유형이다. 가족형은 부모님과 자주 싸우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유형이며 친구형은 일탈행위를 하는 친구가 있고, 개인친구형은 개인 일탈과 친구 일탈의 점수가 높은 유형으로 친구들과 함께 일탈행위를 하는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에 있어서 위험요인은 개인의 일탈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여러 일탈행위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위험을 예방하거나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형과 독립형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 유형별 가족특성 요인과의 관계를 어머니 출신 국가, 결혼 상태, 가정형편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우선 어머니 출신 국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독립형’은 뚜렷하게 연관된 국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형’은 태국과 한국, 필리핀, 기타국가와 연관성이 높았고, ‘안전형’은 베트남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친구형’은 한국과 연관성이 높았으며, ‘개인형’은 한중 중국과 연관성이 높았고, ‘개인친구형’은 태국, 기타, 한국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 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독립형’과 ‘개인형’은 ‘이혼’과 연관성이 높았고, ‘가족형’과 ‘친구형’은 ‘별거’와 ‘사별’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친구형’과 ‘안전형’은 ‘결혼 및 동거’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님의 이혼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에 있어서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부모님의 양육 태도 및 관계가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선경, 2010; 우안순, 2019; 정두수·백진아, 2020; 최순례·이홍직, 2020)과는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구조적인 가족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부모님의 관심과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가정형편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형은 가정형편이 ‘보통이다’와 연관성이 높았고, 가족형은 가정형편이 ‘아주 어렵다’와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독립형과 친구형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이다’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친구형은 뚜렷하게 연관성이 높은 가정형편 상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형편이 보통인 경우에는 뚜렷한 학업 중단 위험 요인이 나타나지 않으며, 가족과의 문제가 높은 가족형인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가족 통합적 지원과 구청의 사례관리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다문화플라자를 통한 윈스톱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디지털 접근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미래사회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 유형별 다문화 수용 요인과의 관계는 이중문화수용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중문화수용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인형은 ‘부정한국/부정외국부모’와, 가족형은 ‘부정한국/긍정외국부모’와 연관성이 높았으며, 안전형은 ‘긍정한국/긍정외국부모’와 독립형은 ‘긍정한국/부정외국부모’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형과 개인친구형은 뚜렷하게 연관성이 높은 이중문화수용태도 유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안순(2019)과 정두수·백진아(202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

나 이러한 연구와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한국문화를 수용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청소년과 외국 부모의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이 학업 중단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국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단계에 한국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언어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정세진 외, 2018),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등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이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에서는 독립형은 '고동료/고이성'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형은 '저동료/중이성'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친구형은 '저동료/고이성'과 연관성이 높게 나온 반면 안전형은 '고동료/고이성'과 '저동료/고이성'과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있었으며, 친구형은 '고동료/저이성'과 상대적인 연관성이 있었고, 가족형은 '저동료/고이성'과 상대적인 연관성이 있었지만 그 연관성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인 다문화수용성이 학교적응을 돕는다는 연구(문희정·김은예, 2021; 임명희, 2022)와 비슷한 맥락으로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경우에는 학업중단 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다문화수용성 중에서도 다문화 동료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으로 수용하는데 동의하는 유형이 학업중단에 더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 친구, 단짝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도를 높이는

것은 학업 중단 위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여행 등의 다문화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Chang, 2002; 정석원, 2014), 이들을 국내에 머무르게 하면서 일방적인 다문화 수용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체험하고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경험적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개입과 긍정적인 한국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체험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발달과 가족 문제의 해결이 다문화가족의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 관련 있다는 연구들(Harker, 2001; Hawley et al., 2007; 은선경, 2010)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으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변수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위험요인을 개인·가족·또래·지역사회 등의 통합적인 사회 지지체계와 연관 짓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위험요인을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가족 특성 요인과 다문화 수용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로 차별성 및 창의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전국 조사 표본을 사용하였기에 일반화에 유리하며 보다 구체적인 유형별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곽지영(2020).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조사연구, 65, 165-188.
교육부(2018). 2018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 교육부(2020). 2020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 교육부.
- 교육부(2021). 2021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 김로라·이조경(2016).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3(9), 53-81.
- 김미진·김경은(2021) 중등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군집유형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4(1), 147-169.
- 김순규(2001).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우진·정지아·심태은·이송이(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이중문화 수용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4), 167-194.
- 김현아(2020).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 관련 변인의 군집유형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과 신체 및 삶의 만족도 차이, 현대사회와 다문화, 10(4), 59-89.
- 김혜미·문혜진(20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 (한국인 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4), 7-31.
- 김혜영(2020).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및 다문화수용성이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과 문화다양성 연구, 2(1), 87-108.
- 노충래·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연구: 서울 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2021.12.31.).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21>.
- 문희정·김은예(2021).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학교적응, 진로장벽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34(4), 125-149.
- 박선숙(2020). 대응일치분석을 적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 유형과 건강관련 요인과의 관계 연구, 인문사회21, 12(2), 1-15.
- 박지수·김하영·한윤선(2021).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유형별 예측요인: 긴장이론, 사회유대이론 및 사회학습이론의 적용. 청소년복지연구, 23(1), 27-53.
- 박희훈·오성배(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 교육문제연구, 32(2), 35-57.
- 양계민·정진경(2008).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연구보고 08-R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오정아·변수정(2020).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7), 125-136.
- 오혜영(2011).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상담복지의 통합적 지원 모형, 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정책 세미나 자료집, 48-69.
- 우안순·백진아(202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이중문화수용태도 및 우울감의 매개효과,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1), 379-388.
- 은선경(2016).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비교,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17(10), 685-695.
- 은선경(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20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연구보고 11-R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덕희(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

- 지원,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 544-552.
- 이래혁·장혜림(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습태도의 관계: 자아탄력성을 통한 친구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7(3), 103-114.
- 이선희(2018). 부모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의 중다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 이영주·박륜경·이수경(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적응 및 학교적응, 교육문화연구, 23(5), 347-37.
- 이재영·강석영·김한주·이유영·양은주(2010).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 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2): 228-24.
- 이지혜(201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군집유형과 긍정적 자동적 사고 및 행복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5), 25-45.
- 임명희(2022). 전북지역 고등학생이 인식한 학교적응과 세계시민의식의 관계에 대한 다문화인식 및 다문화수용성의 매개효과, 교육융합연구, 20(1), 119-132.
- 임유화·이병욱(2014). 특성화고 학생의 잠재적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직업교육연구, 33(2), 1-16.
- 정규석·Bronson(2000). 미국 고등학생의 학교중퇴에 관한 다체계 모델: 모델검증과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에 주는 의미, 아동복지학, 9, 206-225.
- 정두수·백진아(2020).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이중문화수용태도. 집단따돌림 및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10(10), 161-173.
- 정두수(202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정세진·윤혜미·정다영·박설희(2018).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 영향요인 연구 - 개인, 가족, 다문화배경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4, 23-50.
- 조성희·박소영(2020). 다문화가족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4(3), 91-119.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미·조강원·임명식(2021).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방임이 학업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3(4), 103-121.
- 천정웅(2021).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 최경일(2016). 도시와 농촌 초등학생의 또래관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차이-학교적응과 지역사회 인식의 매개효과, GRI 연구논총, 18(2), 103-126.
- 통계청(2020). 2020년 사회조사결과. 통계청.
- 통계청(2021). 청소년통계. 통계청.
- 한정자·홍지영 (2017).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 중단의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4(3), 493-504.
- 홍나미·박현정(2017). 부모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미래사회복지연구, 8(2), 1-27.
- Arends-Toth, J. V., van de Vijver & F. J. R. (2006). Issues in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acculturation. In M. H. Bornstein & L. R. Cote (Eds.), *Accultur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Measurement and development* (pp. 33-62). Mahwah, NJ: Erlbaum.
- Assael, H. (1995).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5th ed.). South Western.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Eds.). (2006). *Immigrant youth in cultural transition: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cross national contexts*. Mahwah, NJ: Erlbaum.
- Chang, I. (2002). *Ethnic identifications and attitudes toward language diversity: A recursive path analysi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doctoral dissertation.
- Daly, B. P., Shin, R. Q., Thakral, C., Selders, M., & Vera, E. (2009). School engagement among urban adolescents of color: Does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nd neighborhood safety really matter?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8(1), 63-74.
- Diener, E., & Fujita, F.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Goebert, D. (2009).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Minorities, and Acculturative Stress*. In S. Loue, & M. Sajatovic (Eds.), *Determinants of Minority Mental Health and Wellness (pp. 125-148)*. New York, NY: Springer.
- Harker, K. (2001). Immigrant generation, assimilation,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Forces*, 79, 969-1004.
- Hawley, S. R., Chavez, D. V. & Romain, T. (2007). Developing a bicultural model for academic achievement: A look at acculturative stress, coping, and self-perception.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9(3): 283-299.
- Huisman, J., & Smits, J. (2009). Keeping children in school: Household and district level determinants of school drop out in 322 districts of 30 developing countries. Nijmegen Center for Economics (NiCE) Working Paper 09-105.
- Janosz, M., Le Blanc, M., Boulerice, B., & Tremblay, R. E. (2000). Predicting Different Types of School Dropouts: A Typological Approach with Two Longitudinal Samples,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92(1): 171-190.
- Lester, L., Waters, S., & Cross, D.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connectedness and mental health during the transition to secondary school: A path analysis. *Journal of Psychology and Counsellors in Schools*, 23(2), 157-171.
- Nguyen, A. M. D., & Benet-Martinez, V. (2013). Biculturalism and Adjust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1): 122-159.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secondary school students in 38 countries*. Amsterdam: Netherlands.
- Skillin, M. E., & Gay, R. M. (1974). *Words into type (3rd ed. rev.)*. Prentice Hal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 *Chicago manual of style (17th ed.)*.
- 투고일자 : 2022. 05. 14.
 심사일자 : 2022. 05. 29.
 게재확정일자 : 2022. 06. 30.

A Study on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Various Types of Risk for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Academic Suspension

SunSook Park

Dept. of Social Welfare, Tongmyong University

This study applied correspondence analys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characteristic factors of the academic suspension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factors. The ninth year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CAPS) was applied and total of 1,146 multicultural adolesc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the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the risk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cademic suspension were categorized into 6 types. The types are, 'independent type,' 'family type,' 'safety type,' 'peer type,' 'individual type,' and 'personal peer type.'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academic suspension risk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with the family characteristic factors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of their mother, marriage status, and the awareness of family circumstances type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academic suspension risk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with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factors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ttitude toward bicultural adaptation and the types of multicultural adjustment.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ions were made to prevent and minimize the risk of academic interrup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Korean in the future and to help them adapt better to school.

Key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dropout risk, family characteristic factor, multicultural acceptance factor, correspondence analysis